

최신 국내 연구동향

본 논문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4권 1호에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실

서울지역 산업장 근로자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연구

정연강 · 박신애 · 이나미 · 윤순녕 · 김영임
왕명자 · 이순남 · 김은희 · 고영애

본 연구는 서울지역 산업장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를 분석하여 산업보건관리의 발전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기간은 1992년 12월에서 1993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서비스업체를 제외한 산업체 중 산업간호사가 보건관리자인 산업장 46개 업체의 근로자 41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PC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 ANOVA, F-test, t-test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사무직이 59.8%이고, 연령은 25~39세가 73.2%이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58.4%, 교육 정도는 고졸이 70.1%, 근무경력은 1~3년 미만이 27.5%, 월수입 30~70만원미만이 58.5%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

대상자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의 총화점수는 80점 만점에 52.7점이었으며, 지식정도는 24점 만점에 15.71점, 태도는 44점 만점에 29.19점, 실천정도는 12점 만점에 7.40점이었다.

근로자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정도의 항목별로는 직업병 검출을 위한 특수검진의 필요성이 3.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산업장 보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8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항목별 태도점수는 건강검진이 부당한 시간소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필요성은 3.17점,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 3.02점 순이었으며, 건강검진 결과의 추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1.79점, 건강검진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1.86점으로 나타나 건강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실천정도는 총 4점 만점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참여도가 3.5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보건교육의 참여도는 0.86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정도에서는 성별($p=.000$), 결혼상태($p=.000$), 연령($p=.0000$), 근무경력($p=.0170$), 월수입별($p=.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태도면에서는 근무부서($p=.045$), 성별($p=.01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실천정도에서는, 결혼상태($p=.033$), 연령($p=.0017$), 교육수준($p=.0079$), 월수입별($p=.025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의 총화점수에서는 성별($p=.001$), 결혼상태($p=.003$), 연령($p=.0001$), 월수입($p=.0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건강증진계획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근로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고발생율을 줄이고 직업병 및 성인병의 유병율을 저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산업장 내에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들로 하여금 작업환경관리자와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계획, 보건교육 등 산업장내의 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하게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주력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북지역 산업장의 제특성에 따른 보건관리 수준에 관한 연구

양경희 · 김영희

본 연구는 산업장내에 보건관리자의 임용현황 및 자격과 산업장의 업종에 따른 건강검진, 추후관리 및 보건관리수준 등을 분석하고자 1992년 1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산업간호사

가 근무하고 있는 27개 산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장의 일반적 특성

산업간호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실제근로자수는 552.6명 이었고, 보건관리자현황은 14개 업체(51.9%)에서 산업보건의를 두고 있었는데, 이중 1개업체를 제외한 모두가 비상근 촉탁의였으며, 산업간호사를 포함하여 산업위생사나 간호조무사, 환경관리기사는 모두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건강검진 및 추후관리

근로자들의 일반검진수진율은 92.39%였고 이중 2차 정밀검사 수진율은 11.56%였으며, 2차 정밀조사 결과 C판정(요주의자)율은 51.69%, D판정(의중)율은 13.97%였다. D판정자의 23.16%는 작업을 전환하였고 8.89%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며, 1.64%는 요양하도록 조치하였다. 특수검진대상율은 57.62%였고 실수진율은 96.66%였으며 특수검진항목은 소음, 조명을 포함한 물리적 검진이 가장 많았고(74.1%) 특수검진결과에 대한 추후관리는 11.05%에서 추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휴직율은 0.19%였다.

3. 산업장 업종 및 보건관리자의 형태와 산업보건관리 수준과의 관련성

1개업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장에서 건강관리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업무수행정도는 건강진단(1.02)과 작업환경관리영역(0.97)에서 높았고 보건교육(0.81점)이나 건강사정영역(0.74점)은 그 수행정도가 낮았다. 업종에 따라서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보건관리자 중 환경관리기사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보다 간호사의 보건교육수행율이 높았으며($P=0.017$), 기타 업무영역에서는 산업보건의나 환경관리기사의 유무에 따른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간호사의 산업보건관리수준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검진실시나 결과에 따른 추후관리에 있어 보건관리자나 사업부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사를 위한 명확한 업무규정과 실무 지침서작성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근로자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산업간호사들의 질적으로 향상된 간호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계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언한다.

산업장에서의 보건관리업무 수행실태에 관한연구

-경인 지역 산업장을 대상으로-

조동란 · 김명순 · 안태성 · 고봉련

본 연구는 경인지역 37개 산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형태별로 전반적인 보건관리업무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또한 건강진단업무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각종 직업병 예방 및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건강관리 및 유해작업 환경관리등의 포괄적인 산업보건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1992년 12월 4일~1993년 1월 21일 까지였으며, 자료수집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산업장은 전기, 철강 등의 제조업종 35개와 서비스업종 2개소였으며,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5개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24개소, 1,000인 이상 8개소였는데, 의무실운영은 주로 5~10평 미만의 규모로, 대개 단독사용중에 있었으나, 겸용하고 있는 곳도 4개소 있었다.

또 지정병원으로는 의원급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37개 산업장 중 19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보건관리자의 선임실태를 규모별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이 간호사를 제외한 타인력의 경우에 일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보건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간호사인 경우 타인력에 비해 연령이 20대로 낮고 근무경력도 1~3년 정도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장의 제특성별 보건관리업무 수행정도에서는 산업장 규모가 클수록 보건교육, 건강사정, 건강진단 업무의 수행정도가 높았으며, 보건관리자 선임형태별로는 작업환경관리 업무에 있어서 간호사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타인력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업무수행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검진실태와 사후관리 양상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대상자 중 수진율은 평균 94%였으며 주로 지정병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검진수진자 중 2차정밀검진 대상자비율은 10%였으며, 정밀검진 결과 판정내용에서는 A판정이 45%로 가장 많았으나 C, R판정자 중 추후 관리율은 평균 4%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검진 대상자 비율은 43%로, 실제수진율은 99%로 나타났으며, 특수검진 항목으로는 물리적 인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검진 결과 요주의자 발견율은 15%, 요양자발견율이 1%로, 이들에 대한 추후관리 현황은 추적검사 실시(46%), 근무 중 치료(30%), 통보에 그치는 경우(18%), 작업전환(8%), 휴직(2%) 등으로 나타났다.

그외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의 이상자 통보 방법은 주로 개별통보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산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건관리업무수행 내용도 간호사의 업무 위주로 조사가 됨으로써 타보건관리자의 선임현황별 업무수행양상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

정한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사를 제외한 타보건관리자의 특성별 업무수행 양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또한 본 연구는 업종별 산업보건업무수행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현황별 업무수행 내용만 파악한 것으로서, 앞으로 업종별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특성별 업무수행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업무의 수행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기능이 직업병 예방 및 조기발견 효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경북지역 산업장의 제특성에 따른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실태

김상순 · 김정남 · 박정 · 김옥란 · 차경미 ·
곽오계 · 박경민 · 최연희 · 백경신

본 연구는 산업장의 건강검진 형태와 보건관리 정도를 파악하여 산업장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지역의 49개 산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지역사회 간호학회가 제작한 질문지를 통하여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0일까지 보건관리자에게 직접 배부하여 질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즉시 회수하였으며,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장의 일반적 특성

산업장의 업종별로 제조업이 42.9%로 가장 많

았고, 근로자수는 300인 이상인 산업체가 85.7%이었다.

2. 보건관리자 현황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산업체에서는 모두 산업보건과의 산업간호사를 두고 있었으나 의사가 상근하는 경우는 40.0%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간호사는 (85.7%) 대부분이 상근하고 있었다.

산업위생사(60.0%), 간호조무사(66.7%), 환경관리기사는(100.0%)의 상근율은 보였으며, 산업보건과의 평균연령은 51.6세였으며 산업간호사의 평균연령은 26.5세이었다.

현직 근무경력은 산업보건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사, 환경관리기사 모두 1~3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3. 건강검진 및 추후관리

근로자들의 일반검진 수진율은 94.31%였고, 이중 2차 정밀검사 결과 C판정(요주의자)율은 43.86%, D판정(의증)율은 22.19%이었으며, D판정자의 13.28%가 요양하도록 조치되었고, 8.7%가 작업전환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근로자는 0.9%이었다.

특수검진 대상율은 65.04%이었고, 실수진율은 98.65%이었으며, 특수검진결과 추후관리는 근무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75.94%로 가장 많았다. 특수검진 항목은 물리적인자에 대한 검진이 가장 많았고(59.2%), 특수검진 결과 통보방법은 대부분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였으며(61.2%), 특수검진 결과 회신기간은 1개월이내가 38.8%, 1~2개월 이내가 36.7%로 대부분 2개월 이내에 회신되었다.

보건관리자가 직접 발견한 직업병 유소견자의 특수검진 의뢰 가능성은 95.9%이었다.

4. 산업장 보건관리 수준

건강관리실은 89.8%가 있었고, 그중 단독 사용하는 경우가 84.1%이었으며, 지정병원이 의원인 산업체가 많았다(31.2%).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 정도는 건강진단(14

점)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산업장 건강 사정이 0.83점으로 가장 적게 실시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추후관리에 있어 보건관리나 사업주의 적극적이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산업장의 건강관리는 산업간호사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이 보완되어져야 하며, 산업간호사의 질적인 간호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보수교육 또는 전문적인 교육 Program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산업장의 건강검진과 보건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황보선 · 신유선 · 윤석옥 · 이지현 · 김정순
김이순 · 김복용 · 강영미

본 연구는 산업장의 건강검진형태와 보건관리 정도를 파악하여 산업장 근로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산업 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1992년 12월 10일부터 1993년 1월 20일까지 부산지역에 있는 근로자 50명이상의 산업장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회수된 56개 산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지역사회 간호학회가 공동개발한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산업장의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7.9%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수는 300명 미만의 산업체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66.1%가 주로 1부제였으며 50.0%의 산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보건관리자 현황을 보면 산업간호사(62.5%), 의사(35.7%), 환

경관리기사(28.6%), 산업위생사(10.7%), 간호조무사(5.4%)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2. 산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현황은 300명 미만의 산업장에서는 의사의 50%, 산업간호사의 34.4%, 산업위생기사의 50.0%, 간호조무사의 33.3%, 환경관리기사의 6.3%로 나타났으며, 1000명 이상의 산업장에서는 의사의 30%, 산업간호사의 31.4%, 산업위생기사의 33.3%, 간호조무사의 66.7%, 환경관리기사의 43.7% 등 다양한 보건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3. 보건관리자의 특성으로는 연령을 볼 때 산업 의사의 경우 55.0%가 45세 이상이였으며, 산업간호사의 경우는 45.7%가 25~29세였다. 경력을 볼 때는 산업의사는 7년 이상의 경력자가 45.0%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경력자는 2.9%로 드물었고, 80.8%가 5년 미만의 경력자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로는 의사의 경우는 90%가 비상근인데 반하여, 산업간호사는 77.1%, 산업위생기사는 66.7%가 상근근무이며, 간호조무사와 환경관리기사는 100% 상근근무로 나타났다.

4. 일반검진실태에서 보면 일반검진을 받은 대부분이 지정병원(81.25%)이었으며, 일반검진 수진율은 95.71%로 나타났고, 2차 정밀검사 수진율은 12.89%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C판정율은 58.41%였고, D판정율은 36.73%로 높게 나타났다. 유소견자 조치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7.84%, 작업전환이 8.12%, 요양자가 6.23%로 나타났으며, 통보방법으로는 개별통보가 78.5%이었다.

5. 특수검진 실태에서 특수검진대상자율은 39.14%이고, 특수검진 수진율은 76.82%로 나타났고, 특수검진결과 C판정율은 8.24%, D판정율은 1.23%였으며, 특수검진결과 조치현황으로는 통보에 그치는 경우가 27.7%였다. 특수검진 개별통보방법에서는 직접통보가 78.6%로 대부분이였고, 회신기간은 30.4%가 검진 1~2달 이내에 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보건관리자의 특수검진의뢰 가능여부는 85.7%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6. 산업장 보건관리실태는 58.29%가 의무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55.36%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7. 산업장 보건관리정도는 총 28점 평균 17.57점

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규모별 특성에 따른 산업 보건관리 정도는 작업환경관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F=3.72, P=0.017$), 산업장 보건관리 총화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3.94, P=0.013$). 보건관리자 특성에 따른 보건관리정도는 산업간호사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따른 보건관리정도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건강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추후관리에 있어서 보건관리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또한 산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산업간호사 중심의 보건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질적간호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경력별 보건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업장의 특성별 건강검진과 보건관리

—광주·전남지역—

강혜영·박인혜·최영애·오미성
최희정·유수옥

본 연구는 산업장의 건강검진형태와 보건관리 정도를 파악하여 산업장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광주, 전남지역의 40개 산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지역사회간호학회가 공동 개발한 질문지를 통하여 1992년 12월 20일부터 1993년 1월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산업간호사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SAS를

이용, 통계처리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장업종별로 제조업이 85.0%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수는 500명 이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주로 1부제(48.6%)와 3부제(43.2%)였고, 75.0%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보건관리자는 간호사(100.0%)와 의사(77.4%)가 주로 배치되어 있었다.
2. 산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산업장에서만 의사(8곳), 간호사(10곳), 위생기사(5곳), 간호조무사(2곳)의 다양한 보건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3. 산업보건관리자의 특성 중 연령은 의사는 과반수 이상이 50세 이상인데 비해 간호사, 위생기사, 간호조무사, 환경관리기사는 대다수가 39세 미만으로 대조를 보였고, 현직 근무경력도 의사와 위생기사는 과반수 이상이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경관리기사는 과반수 이상이 5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응답한 21개 산업장에서 15곳의 의사만 비상근제였고, 그밖의 모든 인력은 상근하는 형태였다.
4. 일반검진 상태에서 일반검진을 받은 기관은 대부분이 지정병원(87.5%)이었으며, 일반검진수진율은 96.7%로 높게 나타났다. 그의 정밀검진수진율은 15.8%이었고, 정밀검진 결과 C판정율은 9.4%, D판정율은 3.8%이었으며, 유소견자 결과조치는 근무중 치료가 82.6%, 요양자율이 55.0%이었고, 그 결과 통보 방법으로 개별통보(95.0%)가 대부분이었다.
5. 특수검진 상태에서 특수검진 수진율은 98.4%이었고, 특수검진 결과 C판정율이 11.7%, D판정율이 3.9%이었으며, 특수검진 결과 질병자 조치는 추적 검사율이 54.2%, 근무중 치료율이 52.4%로 높게 나왔고, 통보에만 그치는 경우도 14.0%나 되었다. 특수검진 통보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법이 62.5%로 나타났다. 특수검진 결과 회신기간은 주로 1~2개월 이내(57.5%)이었으며, 보건관리자가 발견한 직업병 의심자는 의뢰는 97.4%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6. 산업장보건관리 실태는 92.3%에서 보건관리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89.5%만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7. 산업장보건관리 정도는 총 28점 중 평균 13.8% 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건교육과 산업장건강사정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산업체 규모별에 따른 보건관리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429$), 보건관리자특성에 따른 보건관리정도도 간호사 단독으로 있는 경우와 간호사와 의사 또는 환경기사가 있는 경우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67$),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따른 보건관리정도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5$).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산업간호사 중심의 보건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산업장의 업종별 보건관리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3) 산업장 간호사의 효율적인 보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요청된다.

대전 · 충남지역 산업장의 보건관리 실태

홍춘실 · 김현리

대전 · 충남지역의 산업장 보건관리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장의 일반적 특성, 건강검진에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장의 일반적 특성, 건강검진에 관련된 사항, 산업장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1992년 12월5일부터 1993년 3월 10일까지 산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총 30명이 대상인원이 되었다.

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전 · 충남지역은 지역특성상 제조업(50%)

이 가장 많고 그 외에 기타로 분류된(24%) 연구소의 밀집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사업장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2. 산업장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사업장은 300~499인 군이 11개소(37%)였고, 1,000명이상도 4개소(13%)나 되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8개소(60%)의 사업장에서 조직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체계적인 조직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4. 건강관리실은 25개소(83%)에서 갖추고 있었으나 단독형태는 23개소(77%)로 보건관리의 중심지가 되는 장소의 구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5. 건강검진을 맡아서 실시하는 지정병원은 60%가 지정되어 있고 주로 병원과 조사대상 산업장의 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검진의 신뢰성이 기대할만 하다 할 수 있다.

6. 산업보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사업장은 모두 산업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었고 10 곳은 산업보건의가 시간제 근무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산업위생사가 3개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간호조무사는 1개소만이 배치된 상태였다.

7. 산업장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96%였고 2차 정밀검사 수진대상은 8.5%, 2차 정밀검사 결과 C·D판정율은 73.6%, 일차검진자 중 C·D판정율은 7.8%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D판정자에 대한 추후관리는 약 50%정도 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8. 특수검진이 필요한 사업장은 13개소(43%)였고, 특수검진대상자의 비율은 15%이고 실제 특수검진율은 99%로 거의 검진을 받고 있었으며, 특수검진결과의 처리는 84.7%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무응답으로 제외되어 분석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통보에 그친다 15%와 함께 나머지 15%에 대한 관리대책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수검진결과의 통보에 있어 문제있는 사람에게 개발통보하는 경우가 12개소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검진결과와 회신기간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업체가 50% 이상이었다.

9. 산업장 보건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상태를 점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업종별 보건관리수행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2차 정밀검사 후 C와 D로 판정받은 근로자의 비율로 보았으므로 낮은 비율일수록 건강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산업장 보건관리의 총점과는 역상관관계($r = -.7689$ $P < .001$), 보건교육($r = -.4962$)과 건강사정($r = -.2874$)과도 역상관관계로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건강수준이 높게 나타난 산업장에서 보건관리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산업장보건관리는 주로 산업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간호업무수행에 필요한 여건이 아직은 보완되어야 하고, 산업보건관리영역 중 보건교육에 의해 산업장근로자의 건강상태의 향상과 보존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건강사정영역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산업장 보건관리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지고 산업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재삼 제고되어져 산업장의 산업간호인력의 배치와 적절한 역할부터, 그리고 업무수행에 대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산업장보건관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경상남도 일부지역 산업간호사의 보건관리 현황

박정희 · 우선혜 · 강영실

본 연구는 산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제와 간호사의 보건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산업장중 중서부지역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도구는 지역사회 간호학회에서 공동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장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은 83.3%가 제조업이었으며 산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곳이 41.7%, 500~999명 인곳이 36.1%였다. 근무제로는 1부제가 55.6%였다.

2. 보건관리자의 특성

보건관리자중 의사는 44.4%에 선임되어 있었고 37.5%가 상근이며 평균연령은 43.9세, 평균경력은 4.0년이였다. 간호사는 대상산업장에 모두 있었고 88.8%가 상근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7.6세, 평균경력은 3.0년이였다. 산업위생기사는 33.3%, 환경기사는 69.4%의 산업장에 선임되어 있었고 간호조무사는 19.4%의 산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3. 건강검진 실태

일반검진 수진율은 99.9%로 매우 높았고 검진결과 정밀건강진단 대상은 전체근로자의 10.8%였고 그중에서 관리가 요구되는 C판정이 30.9%, D판정이 23.4%였다. D판정자 중 50.0%는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요양 등의 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50%는 별다른 조치없이 지내고 있었다.

특수검진 대상자는 전체근로자의 19.3%였고 실제 수진율은 79.9%였다. 수진결과 추후관리 대상자는 18.6%였고 이들 중 44.9%는 근무중치료, 추적검사, 퇴직, 작업전환, 시간 단축, 휴직, 산재처리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55.1%는 통보만 받고 있었다. 특수검진 항목은 분진과 유기용제가 75%, 특수화학물질이 50%, 물리적으로인 38.9%, 중금속 22.2%의 산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4. 산업장 보건관리

보건관리 자원으로서 69.4%의 산업장이 지정병원을 갖고 있었고, 보건관리 대행을 하는 곳은 19.5%였다. 건강관리실은 97.2%가 갖고 있었다.

사업장 보건관리는 건강진단 업무가 가장 잘 수행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환경관리 업무, 산업장 건강사정, 보건교육의 순으로 수행되고 있었다.